

讀者 諸位께

저는 한평생 우리말과 우리글을 공부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국어공부에 뜻을 둔 때부터 헤아리면 60년이 가깝고, 국어선생 노릇한 햇수를 따진다면 50년이 훨씬 넘습니다. 제 나이 이제 80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저는 研究하고 가르치는 생활에서는 비교적 무난하고 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치고 연구한 결과가 실제 생활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말·우리글 공부의 현실적인 성과는 바람직한 言語·文字生活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 언어·문자 생활이 혼란의 극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잘못 가르치고 연구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짓기에 실패한 농부가 거둔 열매의 적음을 한탄하며 낱씨 탓을 하듯, 저의 가르침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하면서 우리나라 語文政策의 잘못됨을 개탄하여 왔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처지에서 앞으로 닥칠 언어·문자생활의 혼란이 우리나라 文化全般의 退步를 가져올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스러움을 잡지나 논문집에 글로 실리고 口頭로도 발표하여 왔습니다. 아마 이런 글을 쓴 것도 족히 50년은 가까울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그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행여나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우리나라 語文政策에 변화의 물꼬를 트게 하면 좋겠다 싶은 심정을 지니고 말입니다.

4 한국인의 文字생활

여기 실린 글들은 대개 지난 10여 년간 여기 저기 기회 있을 때마다 발표하여 하소연한 것들입니다. 때와 장소가 각기 달라 같은 말을 반복한 부분도 있고, 쓰인 용어도 개념규정이 분명치 않은 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한 군데 모아 놓고 보니 손보아야 할 곳이 없지 않았으나 발표 당시의 글을 그대로 살려 실었습니다.

저의 염원은 한결같고 단순합니다. 漢字教育을 초등학교부터 국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하루 빨리 한자문맹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脫皮시키자는 것입니다. 한자를 알아야 한글로만 적힌 글을 읽고도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重言復言 목 터지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허! 참! 이런 글을 쓰다니 杞憂였어! 杞憂!
어디 오늘날 한자 몰라 不便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 기대하면서 삼가 이 책을
江湖諸賢의 책상머리에 공손히 바칩니다.

2013년 8월 22일
光化門書齋에서
沈在箕 삼가 드립니다.

목 차

讀者 諸位께

■ 제1장 論 文

우리말의 特殊構造 / 9

世宗과 訓民正音 / 29

漢字併用の 문자생활 / 65

國漢混用論의 역사·문화적 배경 / 81

國語教育의 正道進入을 위하여 / 113

外來語表記法の 문제점과 해결책 / 142

徐載弼과 한글 운동 / 163

한글의 世界化, 어떻게 가능한가? / 200

어찌하여 우리는 漢字를 國字로 삼아야 하는가? / 210

한글專用이 가져다주는 것 / 223

漢字의 進化和 書同文의 必然性 / 235

■ 제2장 칼 럼

한글은 漢字와 어울려 쓰려고 / 259

도전받는 漢字文化圈 / 264

訓民正音의 受難 / 267

한글專用은 違憲?! / 273

6 한국인의 文字생활

眞實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 280

할아버지 떡도 커야 사 먹는다 / 282

書同文運動을 기대하며 / 284

〔성명서〕 語文政策 正常化를 촉구함 / 286

우리말의 特殊構造

1. 들어가는 말

1-1

우리 韓國語는 어떤 言語일까? 어떤 소리로 말하고 어떤 글자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어를 말하며 살아갈까? 이러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아주 쉽게 풀이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글을 흥미 있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세상의 언어를 수천 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언어 가운데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은 21세기 초반 현재 어림잡아 7,500만 명을 헤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약 5,000만 명, 북한에 2,000만 명,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한인교포가 대략 5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한국어는 이 세상에서 몇 번째나 되는 언어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개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느냐 하는 인구수에 따라 그 언어의 크기를 따진다면 우리 한국어는 이 세상에서 열두 번째나 열세 번째쯤으로 큰 언어라고 합니다. 유럽의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과 비교하면 한국어가 비슷하거나 조금 큰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한국어는 어떤 열개로 짜여 있는가를 차분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1-2

모든 言語는 말소리를 통하여 일정한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어는 말소리와 뜻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갈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소리입니다. 이것을 언어학자들은 音韻이라고 합니다. 모든 언어는 그 언어 나름의 음운으로 말하기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의 음운으로 말하고, 일본사람은 일본어의 음운으로 말하고, 미국사람은 미국 영어의 음운으로 말합니다. 물론 사람의 말소리니까 한국어나 일본어나 영어의 음운이 같거나 아주 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음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음운들이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처럼 일본어나 영어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은 이처럼 각각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음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낱말입니다. 한 언어의 규모는 그 언어가 얼마나 많은 낱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크기가 정하여 집니다. 有識한 사람이 많은 낱말을 알고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가 발달되었고 역사가 오랜 언어는 많은 낱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낱말의 뭉치를 語彙라고 하는데, 그 어휘를 일정한 차례대로 배열하여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 것을 사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는 오천 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文化語이기 때문에 어휘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999년에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대략 40만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文章입니다. 낱말만으로도, 그 낱말이 지닌 뜻이 있으니까 몇 개의 낱말만 사용하여도 뜻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위 또는 한 마디의 완전한 뜻을 표현하려면 문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어는 그 언어의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온전한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공부하는 분야가 곧 文法입니다. 언어학자들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야를 統辭論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옛날부터 문법이라고 말하여 왔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음운을 익히고, 그 다음에 어휘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문법을 익숙하게 익혀서 그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

언어구조는 이와 같이 音韻, 語彙, 文法으로 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 언어를 어떤 글자로 기록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書寫體系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여 문자입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는 언어가 달라도 알파벳(alphabet)이라는 문자를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랍의 여러 나라들도 아랍문자를 공통으로 씁니다. 중국과 대만은 한자를 쓰고 우리 한국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아울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일본어를 일본 문자 가나(假名)와 한자를 아울러 쓰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한국·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동일한 문화를 누려온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렇게 한자를 공통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어는 한글만으로도 쓰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글은 한국어의 음운을 거의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